

# 16연패 충격에 가을잔치 물거품

## ■ 기록으로 본 KIA 2010시즌

프로야구 첫 한이닝 팀 사이클링 홈런 7월29일 롯데전

KIA 팬들에게 2010시즌 가장 되돌리고 싶은 순간은 언제일까?

문화에서의 6월18일은 올 시즌 KIA에게 가장 아동같은 순간이 됐다. 4연승 행진속에 3위를 지키고 있던 KIA는 이날 문화에서 SK와 시즌 4차전을 벌였다.

선발 윤석민의 호투를 앞세워 8회까지 3-1의 리드를 지키며 5연승을 눈앞에 뒀지만 마지막 9회가 문제였다. 윤석민이 9회말 1사 1루에서 적시타를 맞으며 점수는 3-2가 됐다. 손영민이 구원등판했지만 불넷을 허용하면서 1사 1-2루, 서재을을 깜짝 마무리로 투입했지만 초구에 조동화의 끝내기 2루타가 나왔다.

설상가상 경기가 끝난 후 윤석민이 화를 참지 못하고 라커룸을 주변으로 내리치면서 오른손 새끼 손가락 골절상을 당했다. 빠아픈 역전전과 시작으로 KIA의 주력은 멈출 줄 몰랐다. 팀 최다연패 기록(9연패)을 같아지운 KIA는 7월8일 두산과의 잡실경기에서 2-5로 져 16연패를 채웠다.

'다펜딩 챔피언' KIA는 우승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롯데와 2000년대 팀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을 냈다. 순위도 3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16연패의 충격과로 KIA의 4강 꿈도 무산됐다.

16연패로 팬들을 울렸던 KIA는 진기한 기록도 남겼다.

KIA는 7월29일 사직에서 만난 롯데를 상대로 화끈한 타력쇼를 선보였다. 이용규가 쇼의 주인공이었다. 이용규는 3회초 롯데 선발 이재곤을 상대로 3회포를 날리며 41만에 솟았을 빛다. 이용규의 훌륭한 힘으로 장식했다. 이용규, 최훈락도 오랜 무명생활을 딛고 데뷔 후 첫 홈런을 쏘아올렸다.

KIA의 홈런쇼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타자 일순하며 3회초 만루찬에서 다시 타석에 선 이용규는 또 다시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만루포를 터트리며 한 이닝에 7타점을 쓸어담았다. 한 이닝 최다타점 신기록이자 프로야구 29년 역사상 처음으로 나온 팀 한 이닝 사이클링 홈런이었다.

이용규는 올 시즌 벅스 20구까지 가는 승부를 벌이며 '한타자 상대 최다 투구'라는 진기명기의 주인공도 됐다.

## ■ KIA 올 시즌 주요 기록

팀 최다연패(16연패)

6월 18일 SK전~7월 8일 두산전

한국 프로야구 최초 한이닝 팀 사이클링 홈런

7월 29일 롯데전

이용규 한이닝 7타점 신기록

7월 29일 롯데전

양현종 타이거즈 사상 첫 좌완 15승

9월 7일 한화전

페넌트레이스 시상 첫 강설(한파) 경기 취소

4월 14일 두산전

특별한 개인 기록도 있다. 프로야구 최단신 김선빈은 한화 유원상을 상대로 데뷔 3년 만에 훌런을 기록했다. 올 시즌 정식선수가 된 김다원도 자신의 첫 훌런을 그라운드 훌런으로 장식했다. 이용규, 최훈락도 오랜 무명생활을 딛고 데뷔 후 첫 훌런을 쏘아올렸다.

마운드에서는 양현종이 빛났다. 양현종은 16승을 거두며 타이거즈 좌완 최다승 고지를 밟았다. 기존 기록은 KIA 김정수 투수 코치와 동성하고 신동수 감독의 14승이다. 양현종은 6월2일 삼성 타선을 9이닝 무실점으로 막고 생애 첫 완봉승을 신고했다.

마운드에서는 양현종이 빛났다. 양현종은 16승을 거두며 타이거즈 좌완 최다승 고지를 밟았다. 기존 기록은 KIA 김정수 투수 코치와 동성하고 신동수 감독의 14승이다. 양현종은 6월2일 삼성 타선을 9이닝 무실점으로 막고 생애 첫 완봉승을 신고했다.

날씨도 진기록을 만들었다. 두산과의 홈경기가 예정됐던 4월14일 광주에 빠아난 눈이 훌날리면서 페넌트레이스 사상 처음으로 강설(한파)취소가 선언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체조여왕의 갈라쇼

러시아 모스크바 올림피스키 체육관에서 열린 '제 30회 세계리듬체조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리듬체조의 여왕' 예브게니야 카나예비(20·러시아)가 27일(한국시간) 갈라쇼를 하고 있다. 카나예비는 이번 대회 볼 종목에서 우승했다.

/연합뉴스

## 저소득층에 스포츠 관람 지원

### 내달 4일부터 '바우처' 사업 시행

### 기구당 연간 20만원어치 관람권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는 저장석은 구매할 수 없고 일반석만 가능하다.

올해는 시범사업인 관계로 절반 예산이 5억6천700만원으로 한정됐으며 10월4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http://www.kspo.or.kr)) 또는 행정안전부 OK주민 서비스([www.oklife.go.kr](http://www.oklife.go.kr))를 통해 신청으로 접수한 뒤 신한카드사를 통해 스포츠관람 카드를 발급한다.

/연합뉴스

## 미·일 프로야구도 가을잔치 진출팀 윤곽

### 한국 여자유도 종합 우승

#### 2010우즈벡 월드컵 금 4개

한국 여자유도 대표팀이 2010 우즈베키스탄 월드컵에서 금메달 4개를 쓰러지면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정경미는 26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치러진 대회 마지막날 여자 78kg 이하급 결승에서 미국의 카일리 해리슨을 판정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여자 78kg 이상급에 나선 김나영도 자리나 암드리슬로바(카자흐스탄)과 결승 대결에서 허리리우기로 절반을 따내고 연이어 누르기로 절반을 추가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에 따라 여자 대표팀은 전날 우승한 52kg 이하급의 김경옥(하이원)과 57kg 이하급의 김진디(용인대)를 합쳐 총 4개의 금메달을 확보해 종합우승의 성과를 거뒀다.

한편 이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펼쳐진 2010 카자흐스탄 월드컵 남자부 81kg 이하급에 나선 '간판' 김재범은 러시아의 마리트 카바치로프에 안다리걸기 한판패를 당해 은메달을 따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유도 대표팀이 2010 우즈베키스탄 월드컵에서 금메달 4개를 쓰러지면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정경미는 26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치러진 대회 마지막날 여자 78kg 이하급 결승에서 미국의 카일리 해리슨을 판정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여자 78kg 이상급에 나선 김나영도 자리나 암드리슬로바(카자흐스탄)과 결승 대결에서 허리리우기로 절반을 따내고 연이어 누르기로 절반을 추가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에 따라 여자 대표팀은 전날 우승한 52kg 이하급의 김경옥(하이원)과 57kg 이하급의 김진디(용인대)를 합쳐 총 4개의 금메달을 확보해 종합우승의 성과를 거뒀다.

한편 이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펼쳐진 2010 카자흐스탄 월드컵 남자부 81kg 이하급에 나선 '간판' 김재범은 러시아의 마리트 카바치로프에 안다리걸기 한판패를 당해 은메달을 따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유도 대표팀이 2010 우즈베키스탄 월드컵에서 금메달 4개를 쓰러지면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 하인스 워드 시즌 첫 터치다운

### NFL 피츠버그 3연승 견인

미국프로풋볼(NFL) 하인스 워드(사진 오른쪽·34·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시즌 3주차 경기에서 첫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팀 3연승에 힘을 보탰다.

워드는 27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정규시즌 텁파베이 블레이저스와 방문경기에서 개막전 포함 세 경기 만에 첫 터치다운에 성공했다. 와이드 리시버인 워드는 이날 경기에서 3번의 패스를 받아 34야드를 전진했다.

사상 7번째 '1000 리시브' 기록에 도전하는 워드는 개막전에서 6번의 패스를 받아 108야드나 전진했지만, 2주차와 3주차 경기에서 리시브가 각각 1번, 3번에 그쳐 대기록 수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시브 횟수와 함께 와이드 리시버를 평가하는 기준인 '1000 애드' 고지도 현재 페이스로는 멀기만 하다.

워드는 3주차 경기를 치른 지금까지 총 리시브 10번에 151야드를



전진했다. 피츠버그은 100야드 전진에 2번의 터치다운을 기록한 마이크 월리스의 활약에 힘입어 텁파베이를 38-13으로 크게 이기고 시즌 3연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 10월 4일(화)

### ▲ 광주토요대신의회 경기 강남 7월29일(토) 7시 30분

▲ 광주토요대신의회 경기 강남 7월29일(토) 7시 30분